

보도시점 2024. 2. 25.(수) 11:00 2. 26.(목) 조간 배포 2025. 2. 25.(수) 09:00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생활에 만족

-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청년은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 선택
- 귀농가구는 영농규모가 작고 영농기간이 짧아 평균 농가 대비 소득이 낮아도, 귀농에 만족하고 주민과의 관계도 좋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 귀농 유형: 유(U)형 73.0%, 아이(I)형 13.7%, 제이(J)형 13.3%

귀촌 유형: 아이(I)형 48.7%, 유(U)형 37.7%, 제이(J)형 13.6%

※ 제이(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히 50~60%를 유지**하였다.

* 청년층 귀농 이유: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 27.3%, 가업승계 26.1%, 자연환경 21.6%,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려고 11.6%, 기타 13.4%

** 청년층의 귀농 이유 중 농업 비전·발전 가능성+가업승계 비중: ('19) 58.4% → ('20) 55.8 → ('21) 52.6 → ('22) 57.4 → ('23) 60.6 → ('24) 57.6 → ('25) 53.4

귀농, 귀촌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째 가구소득 2,534만원, 3,853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30.2%,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60만원, '24)의 65.2%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1,539만원으로 평균 농가(958만원)보다 오히려 60.6% 높았다. 귀농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경작 규모가 작고* 짧은 영농경력**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귀농가구의 농업생산 활동 외의 경제활동***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가구 평균 경작규모는 0.55ha이며 0.5ha 미만인 76.1%, 0.5~1.0ha 12.3%, 1.0ha 초과 11.6%

** '25년 실태조사 대상 농가는 '19.11월~'24.12월 농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농가

*** 귀농가구의 농업생산 활동 외의 경제활동: ('21) 57.6% → ('22) 45.4 → ('23) 58.3 → ('24) 41.4 → ('25) 69.9

| 구분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
| 전체 평균 가구(A) | 5,060만원 | 958만원 | 2,015만원 | 1,824만원 | 263만원 |
| 귀농 5년차 가구(B) | 3,300만원 | 1,539만원 | 1,103만원 | 625만원 | 33만원 |
| B/A | 65.2% | 160.6% | 54.7% | 34.3% | 12.5% |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73만원, 204만원으로 귀농·귀촌 이전 239만원, 231만원에 비해 27.6%,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7.4개월, 귀촌은 15.5개월이었으며, 준비기간에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아 귀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 교육 참여율은 영농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준비기간: 30대 이하 22.4개월, 40대 26.5, 50대 29.7, 60대 32.9, 70대 이상 37.9
연령별 교육 참여: 30대 이하 68.6%, 40대 50.9, 50대 43.1, 60대 39.0, 70대 이상 32.5

** 영농규모별 교육 참여: 0.5ha 미만 41.7%, 0.5~1.0ha 46.1, 1.0ha 이상 66.1

귀농·귀촌 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으며,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71.4%와 귀촌가구의 51.4%는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귀농가구 97.0%, 귀촌가구 86.3%)이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온라인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 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귀농·귀촌 종합포털 『그린대로』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3월 말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 | | |
|-------|--------------------|-----|----------|--------------------|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 책임자 | 과 장 (공석) | - |
| | | 담당자 | 사무관 | 홍석구 (044-201-1539) |

붙임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5. 3월 ~ '26. 2월(현장조사 '25.9~11월, 결과분석 '25.12~'26.2월)
- 조사기관·방식 : (주)한국갤럽(입찰·선정), 방문 면접조사
- 대 상 : 최근 5년('20~'24) 귀농·귀촌 6천가구(귀농·귀촌 각 3천가구)
*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귀농·귀촌인 통계' 명부를 받아 연도별·연령별 표본 배분·추출 후 귀농귀촌 유형, 준비과정, 주거, 경제활동 등에 대해 상세 실태조사('18~, 매년)

2. 조사결과 주요내용

- (귀농·귀촌 유형)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하는 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 귀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48.7%)이 U형(37.7)보다 우세
* (귀농) ('24) U형 74.3%, I형 13.6, J형 12.1 → ('25) U형 73.0, I형 13.7, J형 13.3
(귀촌) ('24) U형 36.0%, I형 48.9, J형 15.0 → ('25) U형 37.7, I형 48.7, J형 13.6
※ 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연고지는 고향 또는 부모·자녀·친척·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뜻함
- (귀농·귀촌 이유) 귀농은 자연환경(33.3%), 기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順,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順, 다만 연령대별 순위는 다른 양상을 보임
-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7.3%)을 7년 연속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으나 비중 감소세, 자연환경 비중은 증가세
* 비전 및 발전 가능성: ('21) 26.4% → ('22) 33.4 → ('23) 34.6 → ('24) 30.5 → ('25) 27.3
** 자연환경: ('21) 16.6% → ('22) 18.3 → ('23) 17.8 → ('24) 20.4 → ('25) 21.6
- 이러한 상황에서도, 귀농 청년층에서 농업의 비전·발전가능성+기업승계 비중은 꾸준히 50~60% 수준 유지
*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기업승계 ('21) 52.6% → ('22) 57.4 → ('23) 60.6 → ('24) 57.6 → ('25) 53.4
- 귀촌의 경우, 40대 이하에서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이 1순위이나, 50대 이상은 자연환경(16.4%), 정서적 여유(15.4)가 비슷한 수준
* 직장 취업: 30대 이하 21.2%, 40대 15.2, 50대 11.5, 60대 7.9, 70대 이상 3.7
- (준비기간) 귀농 준비기간은 27.4개월, 귀촌은 15.5개월로 전년 대비 각각 11.6%(3.6개월), 13.4%(2.4개월) 감소
- 예년 대비 준비기간이 길었던 '24년 조사결과의 기저효과에 기인
* (귀농) ('21) 22.9개월 → ('22) 24.5 → ('23) 25.7 → ('24) 31.0 → ('25) 27.4
(귀촌) ('21) 15.9개월 → ('22) 15.7 → ('23) 15.3 → ('24) 17.9 → ('25) 15.5

- (투자) 농지·가축·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귀농가구 6,219만원, 귀촌가구 4,563만원이며 정착 초기에 대부분을 투자
 - * 시기별 투자액: (귀농) 초기 투자 89.6%, 추가 투자 10.4% / (귀촌) 78.4, 21.6
 - 30~40대 젊은층 귀농가구의 투자액이 타 연령대비 높은 수준
 - * 연령별 투자액 (30대 이하) 8,209만원 (40대) 9,547, (50대) 6,485, (60대) 5,512, (70대 이상) 4,413
- (가구소득) 귀농가구 첫째 2,534만원 → 5년차 3,300만원(30.2% ↑)
귀촌가구 첫째 3,853만원 → 5년차 4,215만원(9.4% ↑)
 - 귀농 5년 차의 가구소득(3,300만원)은 평균 농가소득(5,060만원, '24)의 65.2% 수준이나, 농업소득에서는 귀농가구가 오히려 60.6% 높고 이전소득·농외소득은 평균 농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 귀농 농가소득 3,300만원: 농업 1,539, 농외 1,103, 이전 625, 비경상 33
평균 농가소득 5,060만원: 농업 958, 농외 2,015, 이전 1,824, 비경상 263
 - 경작 규모가 작고 짧은 영농경력이 낮은 농가소득의 주요 원인
 - * 귀농가구 경작규모는 평균 0.55ha. 0.5ha 미만 76.1%, 0.5~1.0ha 12.3%, 1.0ha 초과 11.6%
 - ** '25년 실태조사 대상 농가는 '19.11월~'24.12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생산 활동 외의 경제활동 증가세
 - * 귀농가구의 농업생산 활동 외의 경제활동: ('21) 57.6% → ('22) 45.4 → ('23) 58.3 → ('24) 41.4 → ('25) 69.9
 - 귀농가구는 논벼(33.0%), 채소(22.3)를 주로 재배하고 작목 선택 이유는 재배 용이성(52.7%), 주변 권유(20.9) 등의 順
 - * 재배 작목: 논벼 33.0%, 노지·시설채소 22.3, 과수 15.7, 서류 8.4, 기타 20.5
 - ** 작목 선택 이유: 재배 용이성 52.7%, 주변 권유 20.9, 고소득 16.8, 기타 9.6
- (지출) 귀농·귀촌 (전) 239만원·231 → (후) 173(△27.6%)·204(△11.3%)
- (정책) 귀농은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36.9%), 귀촌은 주택 구입·임대·수리 자금 지원(22.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융화·만족도) 귀농가구의 75.5%, 귀촌가구의 54.5%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0.8%, 0.6%
 - 10가구 중 7가구(귀농 71.9%, 귀촌 72.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했으며, 불만족은 각각 1.4%, 1.0%